

《萬寶山》, 주체의 탄생과 이동*

崔貞玉**

<목 차>

1. 들어가기
2. 인구의 이동과 지역의 탄생
3. 인구가동을 규제하려는 세력들
4. 타자와 자기의 경계 짓기 : 주체성 확립
 - (1) '고려인 쿠리'를 보는 중국인 농민들의 시선
 - (2) 집회와 연설 : 계몽을 통한 주체화
 - (3) '가난한 피압박 민중'으로 호명되다 :
고려인 쿠리 金福의 연설
5. 나가며

1. 들어가기

소설 《만보산(萬寶山)》(이후 《만보산》)¹⁾은 1931년 7월에 발생한 만보산 사건을 제재로 하고 있다.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간의 수전화 작업을 둘러싼 갈등을 시작으로, 작가 리후이잉(李輝英)은 이들을 피압박 민중으로 규정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나아가 조선인 농민 뒤에 있는 일본제국주의 세력 및 그들과 결탁하여 농민들을 압박하는 중국 관리에 대한 반항을 그리고 있다. 중국현대문학사에서 보자면, 동베이를 배경으로 한 항일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인문사회분야 : KRF-2009-362-B00009]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1) 아래 본문에서 인용된 작품 부분은 리후이잉(李輝英)의 《萬寶山》(上海 : 湖風書局, 1933)에서 인용했다. 쪽수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소설의 선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가 《만보산》을 읽어내는 데 집중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역’의 탄생을 ‘인구이동’과 인구이동을 규제하려는 세력들의 경쟁에서 보는 것이다. ‘동베이(東北)’라는 지역은 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강의 각축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²⁾ 특히 청조가 취한 인구정책, 1860년의 해금정책은 이 지역 탄생의 기반이었다. 그리고 동베이 지역이 대륙의 독자들에게 열강의 치열한 격전지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1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9.18사변(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을 통하여 가시화되었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동베이 지역에서 일어난 만보산 사건을 제재로 한 《만보산》은 중국인 독자에게 ‘동베이’를, 이후 ‘동북작가군’의 항일작품의 선성이 되어 잃어버린 ‘고향’의 이미지로 각인시켰다. 그렇게 역사적 사건과 소설 속 묘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고향’은 바로 ‘중국’이었고, 그 상상을 소설은 담당하고 있었다.

둘은 지역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자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의 문제를 보는 것이다.³⁾ 비어 있는 땅에 울타리를 친다고 영토가 되는 시기는 지났고, 그 지역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로는 영토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보산》 작품 속의 농민은 어떻게 자신을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중국인으로 자기를 확정짓는가. 이러한 주체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타자다. 이때 이용되었던 것이 바로 ‘고려인 쿠리’(원문대로 이

2) 본고는 ‘이동’을 인구의 자발적이고 선차적인 흐름으로 본다. 이 지역에서의 ‘이주’가 정책적이고 집단적인 식민(殖民)의 작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면, ‘이동’은 그러한 위로부터 외적인 개입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삶을 터전을 찾아 나선 자들의 흐름을 지칭한다. 특히 본고가 대상으로 삼는 만보산 사건의 경우, 일본의 이주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베이’/‘만주’라는 지역의 탄생의 역사와 연결해보면 이동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바, 문맥에 따라서 ‘이동’과 ‘이주’라는 단어를 둘 다 사용하기로 한다.

3) 두아라에 의하면, 지역은 항상 그 의미를 고착화하려는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실체가 아니다. 또한 그 의미도 시대 너머의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지역은 추상적인 공간을 흘러넘치는 문화를 통해서 어떤 지속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장소로 거듭난다. 본고는 추상적인 지도상의 공간을 지역화 하는 요인으로 인구, 특히 그들의 정체성을 들고자 한다. 프레젠텐드 두아라, 《주권과 순수성》(한석정 역, 나남출판사), 제6장 참고.

후 고려인 쿠리로 표기하기로 한다)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려인 쿠리의 이주는 원주자 중국인 농민에게 자기 삶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과 두려움을 주었다. 그 두려움에서 그들도 피압박민족이다, 나와 같은 처지라고 자각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작가 리후이잉은 리징핑(李竟平)이라는 활동가와 김복(金福)이라는 고려인 농민을 창조해서 작품 속에 집어넣었다. 실제 사건과는 상관없이 허구적으로 삽입된 두 인물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만보산 사건과는 다른 《만보산》의 주제와 지향점을 담고 있다.

2. 인구의 이동과 지역의 탄생

《만보산》의 배경은 ‘둥베이’ 지역이다. 조선과 일본에서는 이른바 ‘만주(滿洲)’라고 불렀던 지역이다.⁴⁾ 이 지역에 대한 각축은 근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지역은 청나라의 봉금정책을 여기면서까지 한족의 유입이 시작된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탄생은 바로 인구의 이동과

4) 이 지역에 대한 명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만주’이다. 지역명으로서 ‘만주(manju)’가 탄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만주는 원래 민족명이자 국가명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矢野仁一에 의하면, 유럽에서 먼저 쓰인 ‘만추리아’(1830년대)는 ‘만주인들의 국토’라는 용법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 동아시아에 유포된 것은 일본이 유럽의 ‘만추리아’ 용법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지도상에 ‘滿洲’로 표기한 이후부터인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만주’라는 단어 용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말의 범위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이다. 즉 지도에는 성경(盛京) 지역, 지금의 랴오둥(遼東)과 랴오시(遼西) 지역(지금의 랴오닝성(遼寧省)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주에서 제외되어 있다. 랴오둥 지방은 유럽의 지도에 ‘Liaoton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 산해관을 가운데 두고 랴오둥 지역은 만주족의 발원지와는 전혀 다른 지역적 범위를 갖고 있고, 이 지역은 만주족이 아닌 한족의 활동처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인이나 유럽인이 만주라고 부르는 지역(지금의 동3성과 동일한 지역)과는 달리, 청나라 판도 내의 퉁구스계 민족이 살았던 역사적 생활공간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의 연해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矢野仁一의 글은 <地域概念の政治性> (中見立夫)에서 참고했다(《交錯するアジア》, 溝口雄三等編,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3).

이주에 빛지고 있다.

만주국에서 활동한 구딩(古丁)은 <벌판(原野)>이라는 소설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청말로 올라간다. 소설은 1930년대 첸씨(錢氏) 집안 3대가 겪었던 삶과 그들의 사유방식을 그리고 있다. 그중에서 제1세대인 조부 첸차이선(錢財神)은 청말 해금정책⁵⁾ 이후, 둥베이 지역 개간과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서, 해금정책 이전에도 봉금령을 깨고 산해관을 넘어서 만주족의 소작농이 되거나 밭을 일구고는 겨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절성 이민이 성했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남하에 크게 위협을 느낀 청 정부가 이름뿐인 봉금정책을 없애고, 그 지역으로 인구를 이주시켜서 국방을 지키고자 했다. 이에 해금정책을 단행했고, 인구를 이동시킨 것이었다.

청정부가 이 지역의 황무지 개간에 농민들의 욕망을 추동한 까닭은 토지의 확충을 통해 국방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청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을 ‘둥베이’라고 명칭한데서 살필 수 있다. ‘둥베이’는 1900년대 신정(新政)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청정부는 이 지역을 평톈성(奉天省) = 라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으로 나누고 순무(巡撫)를 두었다. 그리고 이 세 성을 한데 묶어서 동(북)3성이라고 불렀고, 이를 관장하는 총독을 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하에서 이 지역은 ‘중국의 둥베이 지역’이라는 지역적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둥베이의 영토 범위가 처음으로 그 형태를 드러낸 것이다.

<벌판>의 첸차이선은 ‘둥베이’ 지역의 탄생 순간을 함께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고향 허베이(河北)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아와 재난을 피해서 산해관을 넘어 들어온 이민자의 하나였다. 한 뼘의 땅도 없었던 그가 “이 들판의 토착 지주(土財主)”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적으로 이 지역의 개간이 허용되었기

5) 청나라는 청초부터 자신들의 탄생지이자 성지인 둥베이 지역에 한족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버드나무를 심어 경계로 삼았고, 만주족 팔기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1860년경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봉금정책을 풀고 한족의 이주를 단행했다.

때문이다. 첸차이선은 한족(漢族)의 유입을 막았던 봉금정책을 해제한 청정부의 계획적인 개척이민정책을 따라서 집안 식솔을 다 이끌고 짐작을 어깨에 지고 묶고, 등에 약간의 식량만을 메고 북으로 올라갔던 것이다.⁶⁾

평탄하고 비옥한 북의 평원에는 무엇보다도 주인이 없었다. 먼저 개간을 해서 그곳을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었고, 황무지를 개간하면 그 토지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이민자 1세대에게 있어서 땅은 먼저 그곳을 점거하면 자신의 것이 되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바쳐 땅을 개간했다.

산에 기대어 물 가까운 곳에, 남쪽을 향해서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몇 덩이의 흙을 퍼내고 집을 만들었다. 몇 백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농법, 소와 쟁기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또한 벌판은 좋은 밭으로 만드는 데 어렵지 않았다.⁷⁾

이렇게 개간된 토지를 중심으로 부락이 형성됐고, 성씨 별로 마을이 만들어졌다. 성씨에 따라 마을 이름도 정해졌다. 《만보산》의 배경인 마자툰(馬家屯)도 마찬가지다. 주인공 농민인 마바오산(馬寶山)의 성씨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지역은 마씨에 의해서 개간되고 개발된 집성촌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 2-3세대가 지나면서, 일족은 분가했고 이를 따라 계층이 생기기에도 이르렀다. 같은 성씨의 친척들 중, 어떤 이는 지주가 되었고, 또 어떤 자는 마름이 되었거나 소작농이 되었다. 이렇게 다시 토지와 삶에서 꺾박을 받고 압박을 받은 자들이 황무지를 찾아 북쪽으로 올라갔다. 1927년 이후에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주민이 급증했다. 10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 더구나 이전에는 계절적, 임시적 이주였다면, 이 시기 이후의 이주자들은 영구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당시 중국 내에서 격화되고 있던 내전과 거듭되는 기근이 동베이 지역으로 과잉인구를 배출했기 때문이다.⁸⁾ 이렇게 이름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던 자들의 이동을 통해서 ‘동베이’의

6) 古丁, 《原野》, 《東北現代文學大系(1919~1949)—中篇小說卷》, 193-194쪽 참고.

7) 古丁, 《原野》, 위의 책, 194쪽.

8)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김경일 등 저, 역락), 36쪽.

범위가 그려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은 한족만의 공간이었던 것은 아니다.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가는 조선인(그 뒤의 일본세력),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철도 변으로 펼쳐지는 러시아인, 그리고 서북 산악지역의 부족 등 다양한 민족들이 같은 공간을 두고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고, 살기 위해서 땅을 찾아간 이들의 삶에서 자신의 생활공간을 ‘둥베이’라느니, ‘만주’라고 부르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일차적이었다. 인구는 단순한 ‘혈벗은 생명’이었다. 하지만 근대 시기에 인구는 영토와 권력의 문제였다. 인구와 인구이동을 따라서 자신들의 힘을 경쟁하는 국가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인구관리를 통해서 둥베이에서의 패권을 쥐고자 했다.

관내(關內: 산해관의 안쪽과 바깥쪽. 둥베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관외’로 봤다)의 중국인 작가들이 쓴 작품과는 달리, ‘둥베이’를 무대로 하거나 만주국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에는 민족적인 각인과 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둥베이 지역으로 몰려드는 일본인이라는 타자는 허베이나 산둥에서부터 유입된 한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일상에서 확립할 수 있게 만든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국 성립 이후, 만주국 내에서 활동을 계속했던 작가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관내에 뿌리를 둔 자신의 근원과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들은 이런 역사소설 창작을 통해서 작가 자신을 포함한 재만(在滿) 중국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3. 인구이동을 규제하려는 세력들

‘둥베이’ 지역의 탄생과 지역을 명명하는 작업은 인구의 탈영토화-영토화에

기반하고 있고, 인구의 영토화를 재영토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라벨을 붙이는 작업인 것이다. 청 정부를 위시해서 러시아, 일본이 인구의 이동과 식민을 통해서 그 지역을 손에 넣고자 했고, 이 지역의 인구에는 항상 주변 국가들 간의 긴밀한 세력 다툼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항상 인구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청 정부는 이민을 통해서 양동작전을 폈다. 위로는 러시아의 남하세력을 막으려고 했고, 아래로는 간도지역으로 치고 올라오려는 일본의 세력을 간도협약을 통해서 막아내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히든카드가 바로 인구였다. 리 나랑고아의 연구에 따르면,⁹⁾ 이 지역에서의 지배는 인구유입을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봤다. 특징적인 것은 청-중화민국이 집단적이고 정책적인 인구정책을 펴지 않아도 대륙의 인구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일본의 인구는 정책적으로 대량의 이민이 추진되었고 그들을 실어 나르는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대고 있었지만 한족의 유입에 비교될 수 없었다. 즉 인구 숫자에서 일본이 중국에 졌다는 것이다.

철도 등의 테크놀로지도 이후 인구가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30년대, 만주국을 가로지르던 철도망을 타고 중국인들이 민들레 흩씨처럼 북쪽으로 점차 둥베이 지역을 확대해갔다. 하지만 더 이상 구덩이 <벌판>에서 그려낸 “개척되지 않은 처녀지로서 비어있는 벌판”은 아니었다. 황무지를 개간하면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되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들의 북상은 그 지역 원주민들의 삶과의 갈등을 낳았고, 또한 193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이민정책 역시 원주자인 중국인 농민에 대한 물리적 폭력 위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양상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만보산 사건이었다.

여기서 잠시 조선인의 둥베이 지역으로의 이동 역사를 보자. 조선인의 이동은 간도 지역의 개발과 관련이 깊다. 간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이섬’이라거나 혹은 ‘간토(墾土)’나 ‘간토(良土)’로 불린 땅이다. 청나라가 봉금했던

9) 리 나랑고아, <만주의 지정학: 정착과 과학 기술> (《동북아의 국가와 민족관계》, 2006년 봄 만주학회 국제 심포지엄 논문집)

땅으로, 두만강 넘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강을 건넜던 시기에 생겨났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족들의 만주이민을 장려하는 ‘이민실변(移民實邊)’ 정책을 펼 청나라는 조선인에게도 개간을 허락하고 그 토지권을 주었다.¹⁰⁾

간도 지역이 문제적 공간으로 떠오른 것은 1910년대의 일이다. 대한제국이 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에서, 간도 지역의 인구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간의 치열한 다툼이 일어났다. 1910년 한일합방과 <간도협약(間島協約)> (1909)은 만주의 조선인으로 하여금 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삶을 꾸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부터 이전의 두 배에 달하는 수가 만주로 이주하기에 이르렀다.¹¹⁾ 일제는 등베이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기도 하고, 그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기도 했고, 1930년대에 이르면 조선과 일본의 인구 압력을 배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이렇게 인구 유입이 기존의 배에 달하는 수에 이르면, 이들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와 단속이 심해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만보산 사건이 터질 즈음에 중국 정부 측이 실시했던 정책은 사건 발생과 당시 중국 농민과 조선인 농민 간의 갈등의 양상을 짐작하게 만든다. 중국 농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화자의 설명으로 점철되고 있는 《만보산》은 중국 정부가 조선인의 이동과 관련해서 아무런 의견도 없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중국

10) 특히 1904년 일러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만주에서의 권익을 획득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만주에 한정되었고, 일본인에 의해 ‘관동주’라고 불린 곳은 러시아로부터 양도 받는 곳이었다. 이 지역은 여전히 청나라의 땅이었고, 잠시 동안의 점유를 청나라가 승인하는 형태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한 곳에서 외국의 두 세력 간의 다툼으로 그 지역을 빼앗긴 청나라로서는 나라의 안보와 영토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1) 김철의 조사(《韓國の人口と經濟》, 東京: 岩波書店, 1965, 28쪽)에 따르면, 1904년에 78,000명이었던 조선인 인구가 1910년에는 202,070명에 달했고, 1920년에는 459,427명에 달했다고 한다. 만주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은 식민지화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거나 혹은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주에서의 조선인의 삶은 대륙 침략을 기도하는 일제 제국주의와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틈바구니에서의 생존이었다. 1930년대의 조선인의 만주지역 이민은 왕성하게 이뤄졌는데, 1930년에는 607,119명에서 1940년에는 1,450,384명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조선인의 유입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간도협약> 체결에서도 알 수 있듯, 1925년에는 일본과 중국 간에 체결된 <쌍방상정취체한인판반법강요(雙方商定取締韓人辦法綱要)>로 볼 때, 조선인에 대한 중국 측의 탄압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강요>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자면 동베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였고, 중국 정부의 경우에서 보자면 이를 이용해서 당시 조선인 이주농민을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즉 중국이 문제 삼은 것은 조선인이 날이 갈수록 동베이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이었다. 1929년에는 50-100무에 해당하는 토지를 외국인에게 저당 잡히거나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소유재산을 몰수한다는 단속조항이 있었을 정도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동베이 지역에서 토지를 사겠다는 외국인은 조선인 외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서 보자면, 그들이 조선인의 토지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하게 대처했는지를 알 수 있다.¹²⁾

하지만 《만보산》 내의 중국 정부 당국은, 조선인이 토지를 사들이고 임대하는 일에 대해서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작중에서 그들은 고려인 쿠리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그들의 손으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중국인 경찰과 마현장(馬縣長) 등의 발언 등을 보건대, 이들은 일본과 관련된 일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이 과정에서 하오용더(郝永德) 처리를 둘러싸고 중국인 농민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중국인 농민은 자신들을 보살펴줘야 할 경찰이 자신들의 이권 행사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반관(反官)’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척후병으로 삼아 동베이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려는 일본의 경우, 조선인은 식민주의의 침병이다. 조선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천황의 신민이 되었으니, 당연히 제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중국인 경찰과 대치할 때, 일본인 경찰은 “한민(韓民)은 대일본제국의 속민(屬民)이

12) 1925년에 체결된 일본과 중국 간의 <雙方商定取締韓人辦法綱要>에 대한 내용은 김시준,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투영된 한국인 상>(《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참고.

다”(207쪽)라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들이 배치된 이유도 일본이 중국정부와 협의해서 떠난 자국의 이익(수전작업)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조선인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제국의 이익이다. 그래서 감시자(이후에는 경찰)의 총칼은 안팎으로 향한다. 안으로 작업하는 고려인 쿠리를 감시하는 한편으로, 바깥으로 그들을 향한 중국인 농민들의 적대감과 공격을 막아야 한다. 물론 이들 간의 접촉을 막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4. 타자와 자기의 경계 짓기 : 주체성 확립

《만보산》에서 고려인의 이주(이동)는 중국인 농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장소를 치고 들어오는 이질적인 존재의 침략행위이다. 그래서 만보산 사건은 고려인-일본인들에 대한 중국인의 저항을 보여준다. 뒤집어 일제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려인의 이주를 통해서 새로운 장소를 획득하려는 식민의 야욕을 드러낸다. 말 그대로 침략인 것이다. 이 틈바구니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고려인 쿠리’이다. 작가 리후이잉은 고려인을 ‘피압박민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중국인 농민들을 각성시키고,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보산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은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중국인 농민의 주체성 확립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1) ‘고려인 쿠리’를 보는 중국인 농민들의 시선

얼음이 풀리고, 눈이 녹았다. 산맥과 황무지, 도처에는 연한 녹색의 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으니, 바야흐로 새로 태어난 잡초이다.

그렇다, 추웠던 겨울은 이미 지나갔다. ...

삼월의 봄날, 따뜻한 봄볕과 부드러운 봄바람이 지면 위를 어루만지듯 지나가면,

새로 난 새싹의 어린 가지 속에 숨어있던 참새들은 남쪽 지역에서 가지고 왔던 자신들의 새로운 노래를 선보이기 시작한다.(1쪽)

《만보산》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창춘현(長春縣) 완바오산(萬寶山) 마자툰(馬家屯) 지역의 봄날 풍경이다. 마을 사람들도 힘든 겨울을 보내고 한해의 농사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마을은 사람들로 인해 활발해진다. 마을의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소리가 촌락에서 피어오르고, 밭에서도 피어오른다.”(3쪽)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 날 자기 밭 옆의 황무지와 정부 소유 황무지(官荒屯)를 개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실제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황무지를 돌아보는 모습이 보이더니, 땅을 재고 풀과 나무를 베는 일이 시작되었다. 마바오산은 외지인의 등장엔 당황하면서 웬지 모를 두려움에 떠난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논으로 만든다는 소문에 마음이 철렁했고, 실제 수로를 파는 작업이 시작되자 불안에 휩싸였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논’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논을 만들자면 무엇보다도 수로를 파야하고, 물을 가둬 두는 댐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인 농민들은 “고려인은 논농사를 잘 짓는다더라, 밭농사 소출에 비해서 많이 거둬들인다면서, 잘 한다고 했지”(23쪽)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농사일이 걱정이다. 비가 많이 와서 댐이 붕괴되어 흘러나오면 물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수전 옆에 있는 자신들의 농사에도 영향을 주어 재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친다. 이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자신의 삶과 농사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난 시절에 비해서 먹고 살고 있다고는 해도,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121쪽) 형편이니, 그들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자기의 영역과 삶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그들은 외지인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자 했던 것이다.

게다가 수로를 정비하거나 댐을 만들어야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유입된다. 외지 사람들이 유입되었을 때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도 이들의 걱정이었다. 특히

이것은 좋은 고려인, 나쁜 고려인이 오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고려인’하면 일본인이 함께 묶여져 상상된다.

“고려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지, 나쁜 놈들은 일본 놈들의 세력에 의지해 일본 놈들의 명령을 들으며 중국인들을 속이고, 변경을 강제로 점령하여 수로를 파고 숲을 베어내는 등 나쁜 짓만 하는 놈들이라구! 그들은 항상 일본 놈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일본 놈이 좋다고 말하니 정말 천골들이야.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들은 일본 놈들이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악랄하다고 말이야. 재작년에 장자툰(張家屯)의 마오씨(毛氏) 댁에 있던 고려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지 않아? ... 그들은 모두 일본 놈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84-85쪽)

이번에 오는 고려인이 모두 좋은 사람이길 바랄 뿐이고, 나쁘면 그놈들을 때려주자는 마을 사람들의 순진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고려인이 온다는 사실 자체는 근심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고려인의 존재는 항상 일본인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의 이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103쪽) 하지만 이들에게 조선인이 화약고가 되는 까닭이 과연 일본인과 연동되어 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들은 자기의 안위와 삶을 자신의 가족과 토지에 붙박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또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존재로서의 타자로 조선인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집회와 연설 : 계몽을 통한 주체화

마자툰 농민들은 수전화 사업의 저지를 목표로, 우선 이 일을 추진하는 중국인 하오용더를 중국정부 당국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당한 하오는 처벌받지 않고 돈과 백을 써서 석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리어 중국인 농민들이 ‘반도(叛徒)’로 내몰렸다. 그러자 농민들은 점차 수전화 사업을 둘러싸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하나씩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의식화에 큰 힘을 발휘한 자가 바로 리징핑이다. 작가 리후이잉이 창조해낸 인물 중의 하나다.

리징핑은 창춘 사범학교의 학생이다. 그는 마자툰을 근거지로 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까발리면서, 이 지역의 농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마자툰 사람들은 원래 이른바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자기 앞의 걱정거리에만 몰두했고, 한 발자국도 더 먼 곳의 이 유를 알고자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일이 자신들의 생각과 예상으로 가지 않으면서 농민들은 학생 리징핑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 특히 리징핑의 폭로로, 일을 추진하는 하오용더는 일본 괴뢰이고, 현과 성의 비준은 그가 뇌물을 먹여서 가능했고, 배후에는 일본영사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마자툰의 수전화 사업은 고려인 농민과의 민족적인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 매국노 및 일본 제국주의의 이익이 한데 얽혀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리징핑은 “투쟁, 자기의 힘으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다”면서 농민들을 투쟁의 길로 끌어들이고 있다.

《만보산》은 뒤로 치달으면서 점차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피압박민족의 연 대라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는 작중 리징핑의 구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중한 피압박 민족은 연합하라”, “중한 민족해방 만세”,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고 돈 있고 세력 있는 자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작가 리후이잉은 이 작품을 구상하고 발표할 때, 당시 《북두(北斗)》의 편집인인 덩링(丁玲)과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어떤 식으로든 좌련과의 의견교환이 있고, 그 의견을 반영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유추하자면 작중에서 리징핑이 제기한 구호가 리후이잉이 《만보산》의 주제의식으로 넣고자 했던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소설에는 리징핑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다. 20세의 사범대학 학생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가 공산당의 활동가인지, 다른 혁명조직의 활동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위의 구호로 볼 때 리징핑을 무정부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¹³⁾

어쨌든 리후이잉이 좌익작가 계열이고, 당시 동베이 지역이 조선인을 포함해 공산당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음에 착안하여, 그가 제시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피압박민족의 연대가 당시 중국공산당의 입장과도 다소 동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공산당이 내걸고 있었던 소수민족에 관한 <정강(政綱)> (1927년 10월에 있었던 중공만주성위 제1차 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정강>)에 의하면, 동베이의 조선인에 대해서 형제민족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일률적으로 토지소유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2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공산당이 동베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조선인 인구를 소수민족으로 봤으며, 그들의 존재로 그 지역에 대한 장악을 꾀하고자 하는 유화정책에서 나온 소수민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¹³⁾ 그리고 이러한 토지정책이 중국공산당 쪽으로 조선인 독립군을 대거 끌어들여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리징핑의 발언은 중국인 소작농과 조선인 소작농을 피압박민족의 예로 거론하고 그들의 연합을 주장하고 있을 뿐, 기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었을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리징핑이 수전화 작업과 관련해서 역점을 둔 것은 중국인 농민의 각성이었고, 그들의 정치조직화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일련의 사건들, 가령 수전화 작업에 참여한 중국인 매판 하오용더를 구타하고, 그 일로 중국인 경찰에 의해서 '반도'라고 치부당하고, 송사를 준비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농민들을 각성시키고자 했다. 그것은 반제국주의의 외침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매판 하오용더 타도와 반관(反官)과 일본제국주의 타도의 외침이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점차 정치적으로 각성해갔다. 그리고 그 모습의 마지막 완결판이 완벽하게 세팅된 정치집회였고, 7월 2일의 거사(만보산 사건)였다. 리징핑은 집회가 열리기 전에 마바오산을 찾아왔다.

13) 김시준은 리징핑을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로 밝힌다. 또한 작가 리후이잉은 상해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설립한 학교를 다녔고, 그와 친분이 있었음을 들어 말하고 있다. 김시준, 위의 논문 참고.

14) 《중국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이해영, 역락), 52쪽 참고.

그는 마바오산에게서 그들이 한 일을 전해 듣고는 대단히 기뻐했다. 이 지방의 사람들이 이미 각성된 것을 기뻐했다. 또 군중이 하오용더와 고려인 인부 우두머리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는 마바오산의 보고를 듣고는 연신 끊임없이 감탄을 쏟아 부었다.(210쪽)

이에 고무된 리징핑은 저녁의 회의를 “정식으로 개최해야지 질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완벽하고 힘 있는 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마리를 찾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발언을 하면, 일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210쪽)이라고 충고했다. 마바오산은 리징핑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실행하기에 이른다. 그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식으로 개최하여 안전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여는 데는 규칙을 갖추어야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되는 등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연후에 그는 리징핑이 그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에 따라서 천천히 말을 마쳤다.

“좋습니다!”

“찬성!”

이라며 사람들의 찬조를 얻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내심에는 모두 회의에 대한 간단한 인상이 생겨났다.

마바오산이 사람들의 숫자를 셸다. 64명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좋습니다. 주석을 추천해주십시오.”(215쪽)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 마바오산은 리징핑에게 들은 정식회의의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천천히 자신의 입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 자리에서 풀 수 있었다. 마바오산은 리징핑의 제의로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마바오산은 우선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수로 공사에 대해서 서툴지만 의견을 제시했다. 가을 추수 때 물난리가 날 수도 있으므로 고려인 쿠리가 수로를 파고 저수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저수지 만드는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였다. 자신들의 한 해 농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농민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로 초점이 모아지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리징핑이 ‘주석’이라고 부르면서 발언을 요청했다. “제가 일본 놈의 악랄한 수단에 대해서 잠시 보고해도 될까요”(216쪽)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는 자본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입장 연설을 했다.

리징핑은 수로 공사와 한 해 농사로 향하는 농민의 관심을 이들 뒤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정부로 옮기고 싶어 했다. 제국주의 국가는 전심전력으로 이웃나라의 토지를 차지하고자 하고, 약소국가를 멸망시키고, 약소민족을 압박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투쟁의 대상은 바로 제국주의라고.

그는 오랜 시간 연설을 했고, 해석을 했고, 또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그저 말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또 명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은 모두 이들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머리를 돌렸다.(218쪽)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자기의 이야기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농민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속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상황이 상상되자, 한편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졌다.”(220쪽) 그리고 농민들의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가을에 홍수가 나면 재난이 된다, 제국주의자의 나쁜 심보를 까발리면서 그들을 설득하자, 고려인 쿠리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도록 이야기로 설득하자, 하오용더를 우리가 심판하자 등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럴 때마다 군중은 “찬성!”을 외쳤고, “좋소!”를 외쳤다.

여기서 볼 때, 조선인의 수전화 사업에 대해서 《만보산》은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해준다. 그것은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작중 농민들의 경우, 그들이 만보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처음부터 제국주의와 중국 관리에 대한 반대 및 피압박민족인 조선인과의 연합을 통한 해방을 주된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리징핑을 통해서 작가 리후이잉은 농민의 정치적 각성의 드라마를 쓰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3) ‘가난한 피압박 민중’으로 호명되다 : 고려인 쿠리 김복(金福)의 연설

농민들은 점차 자신의 삶 속에서의 제국주의의 폐해를 발견해갔다. 개인적이고 마을공동체차원의 내용에서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손실을 배상하라!” / “찬성!” / 통과.

“일본경찰과 악랄한 십장을 때려죽이자!” / “찬성!”

전체의 환호로 통과되었다.

“중국 경찰이 오지 못하게 하자, 오면 때려잡자!” / “좋소!” / “좋소!”

통과되었다.(222-223쪽)

하지만 제국주의의 폐해를 역설하는 리징핑의 발언보다도, 김복이 말한 일 본인의 악랄한 행위들, 가령 부녀강간, 제물 약탈, 농지약탈 등이 농민들에게 더 절절하게 다가왔다. 학생인 리징핑의 말보다도 압박의 경험을 받은 김복의 말에 동감을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이 지점에서 바로 리후이잉이 꾀했던 피압박민족의 단결로 제국주의를 타파 하자는 《만보산》의 주제가 성공적으로 부각된다. 만보산 사건은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농민간의 대립이었다. 그런데 리후이잉은 이 둘 간의 대립을 빼버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 일제를 향해서 저항하는 항일의 서사로 바꿔낸다. 민족적 정체성의 수립이 아니라, 만국의 피압박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같은 민족인 학생 리징핑의 발언보다 고려인 쿠리인 김복의 발언을 통해서 제시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릇 피압박 받은 자가 바로 모욕당한 대중들이니, 국계(國界)를 나누지 않고, 지역에 한계 짓지 않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 대중이 일심 단결하여 반항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제국주의의 진공(進攻)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대중본유의 모든 권리를 되가져와서, 대중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평안한 날들을 보내게 합시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세계의 영구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224쪽)

김복의 연설은 7월 2일 사건이 터진 당일 날 고려인 쿠리를 선동하는 장면에서도 나온다. 그 연설도 위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피압박의 삼한 민중들이여(242쪽)”라면서 고려인을 불러 세운다. 자유를 회복하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의 길, 중국 농민들이 제국주의와 반동 관료들과 항전하려고 하듯, 인간적으로 살기를 원하듯, 함께 일어서라고 외친다.

“우리는 모두 가난한 군중, 모두 피압박 민중입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싸웁시다. 두 반동세력을 향해서 함께 진격합시다.”(242쪽)

김복의 외침을 들은 고려인 쿠리들이 중국인 농민들과 하나가 되어 일본인, 중국인 경찰을 향해서 저항했다고 작품은 그려낸다. 김복 캐릭터는 작품 초반에 “나라를 잃은 망명객”¹⁵⁾으로 소개되어 있다. 다른 침묵하는 고려인 쿠리와는 달리, 김복은 자신을 “나라를 잃은 망명객”이라고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존재다. 김복은 작가 리후이잉이 만보산 사건을 작품화하는 과정에 참가하여서 자신이 말하고자 한 주제의식의 구현자 내지 대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거기에 실제 농민들의 욕망, 특히 고려인 쿠리의 욕망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디서 하나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고려인 쿠리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등베이로 흘러 들어왔다는 가설도 설득력을 갖는다. 즉 이들을 끌고 온 목적도 황무지를 논으로 개간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조선인의 일터가 많이

15) 《만보산》은 고려인 김복의 이주를 통해서 조선인 농민의 이주를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있다. 즉 김복은 이웃의 장복과 얼굴을 트는 과정에서 서로 동정심(同情心)을 갖게 된다. 김복의 80여 살 먹은 부친은 말한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망명객으로 너무 피롭소. 당신을 보니 문득 집 생각이 나고 또 아들들 생각이 나서 우는 거요.” 김복의 네 형제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다가 살해되었다. 자신만이라고 살리려는 부친의 뜻을 모시고 그는 만주로 오게 되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라면 1910년대에는 상당히 시대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설득력이 있지만, 1930년이라는 시점에서 보자면 조금 억지스럽다. 게다가 김복은 흡사 수전 작업에 동원된 고려인 쿠리의 이주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다른 고려인 쿠리들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 측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창춘 근방에 벼농사 구역을 확대해서 일본인과 일본 군인 등의 쌀을 제공할 요량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나, 작품 속의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실제 인물로 이야기되는 조선인 마름이 의병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자면 더욱 그렇다.

생겨나고 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의도에서 만보산 지역의 수전화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¹⁶⁾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인 농민이 리징핑과 마바오산의 연설 및 일련의 회의를 통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각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고려인 쿠리의 경우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혹은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가난한 피압박 민중”으로 호명되고, 그 호명에 호응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김복의 외침에 함성으로 대신했고, 함께 저항했다는 것만으로 드러날 뿐, 날 것 그대로의 고려인 쿠리는 자신의 내심에 대해서 혹은 자신들의 이동과 자신들의 욕망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는다.

5. 나가며

인구를 관리하고 인구의 이동을 관리하는 일은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 확정과 국가 경영에 필요한 기술이었다. 그렇기에 인구의 이동 흐름을 탈취하여 나름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세력들 간의 각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범위 내로 포섭하거나 혹은 바깥으로 배제하거나 하는 기술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주체화 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만보산》에서 보자면, 조선인의 이동(작중에는 수전화 작업을 위해서 동원된 200여 명의 ‘고려인 쿠리’와 그들과 함께 온 조선인 지주 몇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근대 시기에 있었던 조선인 농민의 이동을 총괄적으로 보자면 집단 인구의 이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세력은 크게 보면 중국 정부 당국, 중국 농민들, 공산당 세력, 일본 제국주의(영사관과 일본 경찰)이다. 하지만 이들의 이동은 인간의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16) 김시준,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 투영된 한국인 상>, 283쪽.

살아남기 위해서 이뤄진 수많은 망들, 가령 중국 법률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오용더과 같은 매판이 필요했고, 사업을 위해서라면 공권력에 뇌물을 주어야 했으며, 근대적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했다.

중국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논밭의 작물에 해를 미칠 것인가의 여부, 마을의 질서를 해칠 것인가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몇몇 이방인의 이동이 아닌, 다수 인구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 동물적으로 감각한다. 중국인 원주자, 특히 농민(소작농)들이 조선인의 ‘이동’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자신들의 터전을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수전의 위험성, 그 수전이 뛰어나다는 것, 고려인이 부지런하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봤듯 그것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불안이었고, 자신들의 삶을 붕괴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이렇게 고려인에 대한 즉자적 거부의 몸짓은 작가의 형상화를 거치게 된다. 즉 리후이잉은 즉자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각성시켜서 고려인의 배후에 있는 힘의 역학을 일깨우려고 한다. 이런 소설적 형상화 작업을 통해서 그는 중국 정부 당국에 대한 저항,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 과정에서 김복과 리징핑이라는 허구적 인물이 만들어졌고, 이들을 통해서 중국인 농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획득한다. 리징핑의 연설과 정치집회를 통해서 말이다. 나아가 이들은 김복의 연설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 “가난한 피압박 민중”으로 자리매김 된다.

그들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목숨을 다해 일하는 고려인 쿠리에 대해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모습에 중국 농민들은 자신을 동정(同情)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된 것. 같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점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각성은 마바오산 등의 농민들의 입을 통해서 발화되지 않는다. 화자의 독백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들도 가난한 사람이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와 하나가 되어야지.”(157쪽) 라

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중국인 농민들은 조선인 농민을 바라보는 시점의 변화를 획득한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들은 서로 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 농민들은 쉽게 투쟁과 혁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장치를 삼은 것은 김복의 발언이다.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외침으로 말이다.

위에서 봤듯, 김복과 리징핑이라는 허구적 인물이 작중에서 펼쳐 보이는 것은 농민들의 각성과 주체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역사의 실제 사건이 중국인과 조선인 간의 토지를 둘러싸고 분출되었던 민족갈등이라면, 소설 《만보산》은 피억압의 두 민족의 연대로 제국주의에 저항한다는 내용으로 뒤바뀌어 있다. 마지막의 장면이 이를 잘 보여주며, 이 과정에서 두 민족은 모두 “피압박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거기에 답했다. 정식적인 집회에서도, 저수지를 향하는 7월 2일에도 그렇고, 그렇게 마바오산을 위시해 농민들은 그 호명에 답했다. 그렇게 농민주체는 탄생했다. 연설과 집회를 통해서 리징핑은 중국인 농민들의 정치적 각성에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김복은 억압받는 민족의 하나인 고려인 쿠리를 주체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는 중국인 농민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단계에서 필요한 타자로서의 피억압 민족으로 호명되어야 할 존재를 대표한다. 물론 이 과정은 정밀하게 그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작가 리후이잉이 소설을 전적으로 중국인 농민의 정치적 각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했고, 또 그들을 주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타자로 고려인을 이용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가 리후이잉이 만보산 사건을 통해서 ‘항일’로 자기 주체성을 획득하는 농민을 그려냈듯이, 소설은 중국 대륙 내의 독자들에게 ‘둥베이’를 이중의 억압에 시름하는 ‘중국인’이 살아가는 ‘중국’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다. ‘둥베이’는 독자들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었지만, 리후이잉이 그려낸 《만보산》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고향’의 다른 이름으로, 되찾아야 하는 ‘중국’

이 된 것이다. 이곳이 중국의 다른 이름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중국인들과 더불어 독자들도 그 사건에 직접 개입이나 한 듯, 그 과정에서 주체화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李輝英(1933), 《萬寶山》, 上海: 湖風書局.
- Edward Gunn 著, 楊競人·張靜河·康葵 譯(2000), 《不受歡迎的繆斯—中國淪陷區文學史(1931-1945)》,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 馮爲群 等 編(1992), 《東北淪陷時期文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沈陽, 沈陽出版社.
- 馮爲群·李春燕 著(1991), 《東北淪陷時期文學新論》,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 李春燕 編(1995), 《(東北淪陷時期作家) 古丁作品選》,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 尾崎秀樹 著(1971), 《舊植民地文學の研究》, 東京, 勁草書房.
- 岡田英樹 著(2000), 《文學にみる‘滿洲國’の位相》, 東京, 研文出版.
- 溝口雄三 等 編(1993), 《交錯する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張毓茂 主編(1996), 《東北現代文學大系(1919~1949)》, 沈陽, 沈陽出版社.
- 육군사관학교, 만주학회 共編(2003), 《만주: 통합과 저항, 그리고 일상》, 서울.
- 만주학회 編(2003), 《만주연구(1-4)》, 서울.
- 김경일 等 著(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서울, 역사비평사.
- 만주학회 編(2006), 《동북아의 국가와 민족관계》, 서울, 2006년 봄 만주학회 국제 심포지엄 논문집.
- 김시준 외 著(1999),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해영 著(2006), 《중국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

< 中文摘要 >

《萬寶山》是以1931年7月發生的萬寶山事件爲題材寫成一篇小說。所謂萬寶山事件是

繞着朝鮮農民的水田化作業, 兩個民族之間發生的一個衝突和武力鬭爭。可是兩個民族的背後存在日本帝國主義的奸計。看破了日帝的野心, 兩個民族合心一體地對抗了日帝的侵略。在中國現代文學史上看來, 《萬寶山》是以東北為背景的一個獨特的作品。

本論文以下兩個角度來檢討。第一, 認為把‘東北’這個地域概念的誕生作為幾個勢力之間的競爭。這幾個勢力就是人間移動有關。第二, 想要聯繫地域和當地活着的人們之間的緊密關係。特別本論文重視在東北地區上活着的人們的自己劃定。他們如何決定自己的身份, 就是我是誰。檢查以上學的兩個部分以後具體地要進行分析《萬寶山》小說跟‘萬寶山事件’有什麼樣的關係, 有沒有差異。

關鍵詞：萬寶山事件, 主體, 移動, 民族, 抵抗, 抗日, 演說, 集會, 故鄉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3.31	2011.4.28	2011.5.15	2011.5.20	2011.5.31